

# 광주 장애인동 50년, 함성에서 예술로

## (사)실로암사람들 주최, 광주광역시 지원 11일 밤7시 빛고을건강타운 체육관 광장



(사)실로암사람들이 오는 6월 11일(목) 오후 7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 앞 광장에서 '광주 장애인동 50년, 함성에서 예술로'를 주제로 여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여름음악회는, 광주 장애인 인권운동 50년의 역사적 발자취를 음악이라는 예술적 언어로 되새기고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로암사람들이 '광주 장애인동 50년, 함성에서 예술로' (부제: 저항의 함성, 인간의 길을 열다) 여름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6월 11일(목) 오후 7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여름음악회는, 광주 장애인 인권운동 50년의 역사적 발자취를 음악이라는 예술적 언어로 되새기고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광주광역시 '2026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 예술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 연주와 가수 기현수의 감동적인 무대가 이어져 다양한 예술 장르와 인간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 중간에는 전체 참석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악류 '소문의 낙원'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다. (사)실로암사람들 대표 김용목 목사는 "이번 음악회는 광주 장애인 인권운동 50년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특히 인권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예술로 풀어내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연 중간에는 전체 참석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악류 '소문의 낙원'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다.

(사)실로암사람들 대표 김용목 목사는 "이번 음악회는 광주 장애인 인권운동 50년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특히 인권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예술로 풀어내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文 載 이 박 행 목사  
미션리 주필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  
간경교회교회사회포럼 상임대표  
광주YMCA선교위원

환경주일을 맞이한 오늘,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과연 창조 세계를 지키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파괴의 구조에 무심히 편승한 또 하나의 소비 집단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한, 교회의 신앙은 공허한 언어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구조화된 결과이며, 동시에 신앙의 실패가 축적된 역사이다. 폭염과 홍수, 이상기후는 자연의 경고이기 이전에 인간 문명의 방향에 대한 심판적 징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문제를 '부차적 의제'로 밀

어두고 있다. 구원은 말하면서 창조는 외면하는 이 이중적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성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다. 이는 분명한 청지기적 책임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이 명령을 망각한 채, 성장과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 대형화된 예배당, 과잉 소비적 행사, 편의 중심의 운영 방식은 교회 역사 기후 위기의 공범임을 드러낸다. 문제는 인식이 아니라 태도의 결핍이다.

이제 교회는 선택해야 한다. 선언적 구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전환으로 나아갈 것인가. '녹색교회'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소비되는 동안, 실제로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며, 지역 생태와 연대하는 구체적 실천 없이 환경주일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기만에 가깝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의 공공성 부재이다. 기후 위기는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산업, 정책, 도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개인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내부 경건에만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제는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 지역 생태 보전,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전환에 대해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특히 한국교회는 도시 중심 성장 구조 속에서 농어촌과 자연을 주변화해왔다. 그러나 생태 위기의 해법은 오히려

## 기후 위기 시대, 한국교회에 공공성을 묻다

어두고 있다. 구원은 말하면서 창조는 외면하는 이 이중적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성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다. 이는 분명한 청지기적 책임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이 명령을 망각한 채, 성장과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 대형화된 예배당, 과잉 소비적 행사, 편의 중심의 운영 방식은 교회 역사 기후 위기의 공범임을 드러낸다. 문제는 인식이 아니라 태도의 결핍이다.

이제 교회는 선택해야 한다. 선언적 구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전환으로 나아갈 것인가. '녹색교회'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소비되는 동안, 실제로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며, 지역 생태와 연대하는 구체적 실천 없이 환경주일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기만에 가깝다.

환경주일은 기념일이 아니다. 그것은 심판의 질문이며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이다.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서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이제 교회는 회개하고 전환하며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유일한 응답이다.

그 주변부에 있다.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 도농 순환 구조 회복, 생명 기반 경제로의 전환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교회가 다시 '생명의 플랫폼'으로 서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예수의 삶은 분별했다. 그는 소유하지 않았고 자연을 지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통해 가르친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 선언은 오늘의 교회에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따를 의지가 있는가이다.

환경주일은 기념일이 아니다. 그것은 심판의 질문이며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이다.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서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이제 교회는 회개하고 전환하며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유일한 응답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 광주기독병원, 신안군 장산도 의료선교

### 5월 29일부터 1박 2일 동안 주민 150명 진료

광주기독병원선교교회(회장 김위환)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 위치한 다수교회(담임목사 고현민)와 협력해 섬 의료선교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선교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총 29명(자원봉사자 5명 포함)이 참여했으며, 목포항에서 배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장산도를 찾아 의로서

비스를 제공했다. 의료진은 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진료를 비롯해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X-ray 촬영, 혈액·소변 검사, 물리치료, 발열치유, 영양수액, 미용봉사 등 다양한 의료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동안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의료선교 혜택을 받았으며, 진료와 각종 검사, 치료를 포함한 연인원 810건의 의로서비스

가 이뤄졌다. 특히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 X-ray 촬영 등 종합적인 검사가 가능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주민은 "섬에서는 여러 검사를 한 번에 받기 어려운데 혈액검사와 초음파, 심전도검사, X-ray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주기독병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농어촌



광주기독병원선교교회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의료선교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선교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총 29명이 참여해 150여 명을 진료했다.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의료선교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산도 의료선교 역시 지역 교회와 병원이 협력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회와 병원이 협력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 법무부 지정 고려인마을 동포체류지원센터 무료급식 '사랑의 식탁' 복지안전망 구축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노인돌봄센터의 무료급식 프로그램 '사랑의 식탁'이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의 든든한 복지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정한 고려인마을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

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노인돌봄센터 무료급식 프로그램 '사랑의 식탁'이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법무부의 급식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매주 목요일 노인돌봄센터에서 고려인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평일에도 소규모 급식 지원을 이어가며 복지 사각

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히 '사랑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고려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건강 상담과 생활 정보 제공,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려인마을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무료급식 사업 외에



광주 고려인마을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노인돌봄센터의 무료급식 프로그램 '사랑의 식탁'이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의 든든한 복지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 체류·정착 상담, 통번역 지원, 생활법률 안내, 긴급구호, 의료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

며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 미션리 신문을 보냅니다

밝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고는 미션 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월 5,000원, 1년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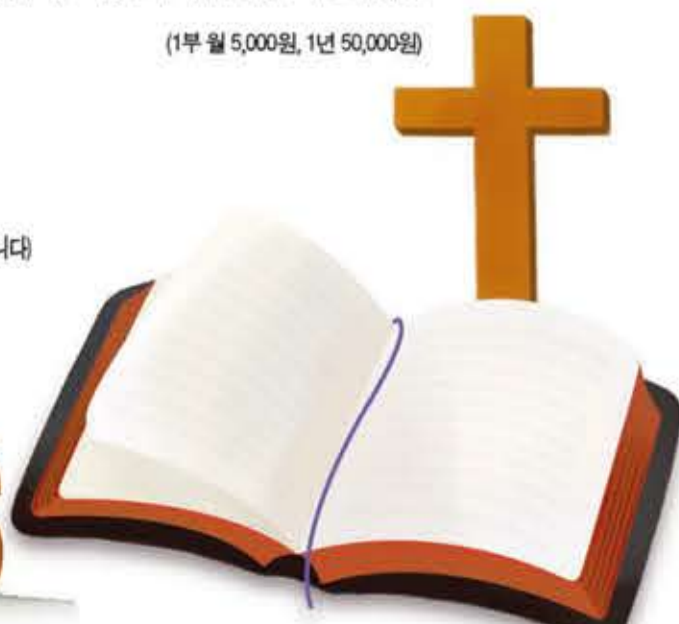
#### 1 정가후원: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i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지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 2 일시후원: 계좌이체

- 농 협: 301-0090-0060-71 예금주: (유)미션21

# NEWS



작성하신후 휴대전화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 010-4802-7824 / e-mail: ph2930@nate.com

### 미션리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복음 담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	
지정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알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금액(매월)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 )부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
우원기관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서명

정통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신빌딩 3층)  
전화: 062)367-9109, 364-9109 / 팩스: 062)367-9108

◆ 가입거래정보의 제공의뢰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된 다음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지정출금일, 출금일, 출금금액, 신청일자, 계좌유지 여부) 및 계좌의 정기 수납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사명, 계좌 및 비밀번호에 관한 정보의 규정에 따라 용이합니다.  
202년 6월 9일  또는 서명